청년 작가들이 그려 낸 현대 단청 향연

무우수갤러리, '모던 단청'展
10인 작가 참여…2월 9일까지
조형, 판화 등으로 단청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각 현상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화엄 사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단청문양과 함께 당시의 기억을 화면에 모으고 흐트러뜨려 그려 넣는다."
(홍보라 작가노트 中)

"기존의 형식과 색감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에게 불교 미술의 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종교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조민경 작가노트 中)**

단청(丹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2월 9일까지 전통 단청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기획단체전 '모던 단청'을 연다.


전시 참여 작가인 조민경의 작품 '공화'(2023).

이번 전시는 강무아·김도영·남아라·박장배·이인승·이지원·정하율·조민경·홍보라·황체상 등 청년 작가 10인이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인 단청을 회화와 조형, 편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시선과 언어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색채와 문양, 상징과 철학이 결합된 우리의 총체적 예술로 주로 사찰 건축에서 활용된다. 그렇기에 현대에서 단청은 과거의 유산으로 기억·인식돼 왔다. 무우수갤러리 기획단체전 '모던 단청'은 이러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청년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다.

'모던 단청'전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 오방색이 지닌 색채의 울림, 공간적 몰입과 체험, 실험적 청년성, 그리고 수호와 길상이라는 단청 고유의 상징성을 주요한 키워드로 삼는다. 참여 작가들은 단청의 색과 패턴, 구조적 리듬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과거의 형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주한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단청은 더 이상 고정된 전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예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전시는 무우수갤러리 3층과 4층,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3층 화이트관에서는 '색과 문양, 새롭게 피어나다'를 주제로, 전통 단청의 색채와 문양을 밝고 경쾌한 현대적 시각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이 소개된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단청의 조형성과 색의 리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갤러리 측의 설명이다.

4층 블랙관에서는 '단청, 신성성과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단청이 지닌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현대미술의 언어로 탐구한다. 보다 깊은 감상과 사유를 유도하며, 단청의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구성된다.

무우수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청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삶과 감각 속에서 다시 호흡하는 예술로 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광사 말사 기탁 성보유산 '한자리'

송광사성보박물관 '敬守寶藏'
말사 12곳 성보 120점 공개
2월 13일부터 1년여 진행돼

조계총림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 말사에서 기탁한 성보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다(敬守寶藏)'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까지 조사가 완료된 말사 기탁 성보를 중심으로, 도난과 훼손의 우려로 박물관에 안전하게 보존돼 온 문화유산 120여 점을 공개하는 자리다.

특별전의 제목은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이 영조가 7세 때 쓴 어필 '송죽(松竹)'을 보고 남긴 배관기(拜觀記)에서 인용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영조 7세 때의 어필로 참으로 세상에 드문 귀중한 보배이니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라(英祖七歲時御筆 眞稀世重珍 須敬守寶藏)"고 기록했다. 이번 전시는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고흥 봉래사 석조여래좌상.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지난 30여 년간 말사에서 기증·기탁된 성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왔다. 특히 1995년부터 불상과 불화, 복장유물 등 도난과 훼손 위험이 큰 성보를 중심으로 기탁받아 박물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왔으나, 그동안 신도들과 대중이 유물을 직접 친견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컸다. 이번 특별전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 남도 불교미술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과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복장 등 보물급 성보를 비롯해, 장흥 신흥사 소장 정방사명 동종(전라남도·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고흥 봉래사 신중도, 원효사 출토 유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유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전은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여에 걸쳐 열린다.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 기간은 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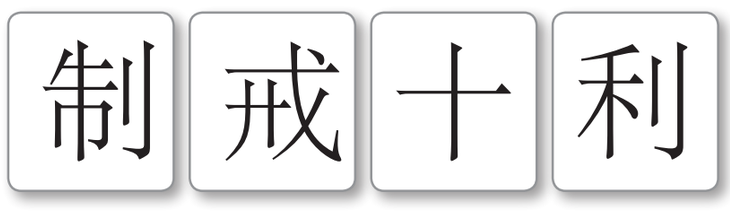
061-755-040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해탈과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계단

㉘ 제계십리(制戒十利)


制 戒 十 利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거듭 강조하신 가르침이라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자에게 계율이 바로 그러하다.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삼학(三學)에서 계(戒)는 마음의 집중인 정(定), 통찰의 지혜인 혜(慧)와 함께 수행의 근간을 이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살생과 폭력, 착취, 거짓말, 성적 일탈, 과도한 음주를 삼가라고 분명히 당부하셨다. 계율은 탐욕과 분노 같은 번뇌와 악업을 제어하고 소멸하기 위한 자기 절제의 기준이다.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은 산란해지고, 혼탁하고 흔들리는 마음 상태에서는 바른 통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오분율〉은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비구들이여, 승가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악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참회하는 이의 안락을 위해, 현세와 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해, 아직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주고 이미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고 청정한 범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계를 제정한다." 이는 번뇌의 소멸, 공동체의 화합, 정법의 지속이라는 세 가지 동기로 요약할 수 있다.

45년간 전법하며 계율을 제정한 부처님의 뜻은 여러 경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초기의 재가 불자들에게도 이웃과 나누는 보시와 함께 계율의 실천이 참된 행복의 토대임을 강조하셨다.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시자 아난에게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계율과 법을 너희의 스승으로 삼으라"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비구들이여, 계율이 존중되고 잘 지켜지는 한 정법은 오래 머문다. 계율이 무너지면 정법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계율이 승가의 번영과 정법의 존속을 떠받치는 핵심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계율을 자신의 파멸을 막고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억압과 통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상윳따 니까야〉에서 계율은 쇠사슬이 아니라 방패로 비유된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기쁨이 생기며, 기쁨에서 삼매가 일어나고, 삼매에서 지혜가 생긴다."

흐름은 명확하다. 계율은 마음의 평안을 낳고, 평안은 집중으로 이어지며, 집중은 지혜를 낳아 마침내 해탈로 나아가게 한다.

문득 명나라 말기 문인 진계유의 잠언이 떠오른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기운이 들떠 있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말이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화엄사 전통 사경원, 제4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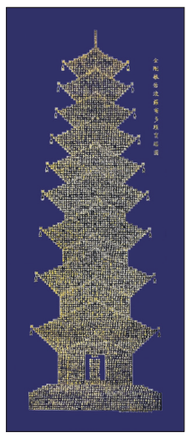
경내 성보박물관서 2월 28일까지

전통사경 수행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화엄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 전통사경원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례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제4회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 '寫, 그 樂-사경, 그 즐거움'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액자 작품 19점과 선장본 17점 등 총 36점의 사경 작품과 함께, 양초에 새긴 사경 작품들도 선보인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전통사경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라며 "회원들의 깊은 발원과 정진이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사경의 대중화로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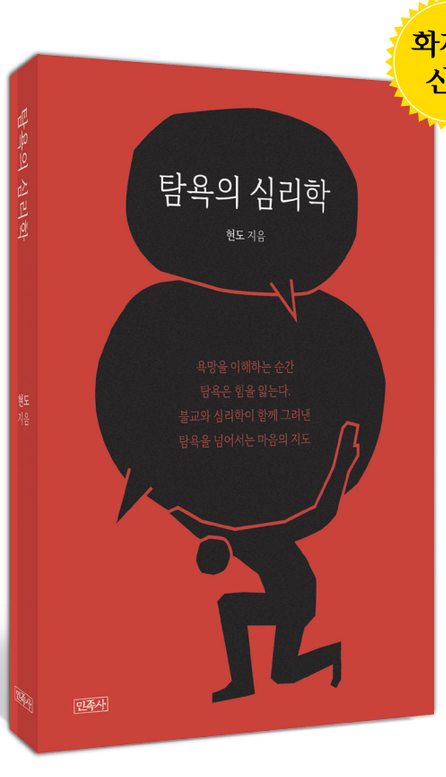

선양수 회원의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보탑도'.

화엄사전통사경원은 2020년 전임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과 김경호 국가무형문화유산 사경장의 발원으로 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